

도 “미래 성장동력 확보 협약 잇따라”

7~11일 도정 주요일정 발표... 수소 에너지·관광 인프라 구축 등 핵심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 가속화

전북특별자치도가 7~11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핵심 사업들을 잇달아 추진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김철태 전북자치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암모니아 크래커 테스트베드 구축부터 4성급 관광호텔 건립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7일 오후 3시 군산 한국조선해양 기자재연구원에서는 차세대 수소 생산 기술의 핵심인 ‘암모니아 크래커 테스트베드 구축’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 현대차 등 주요 기업, 방재시험연구원이 참여하는 이번 협약은 암모니아를 고열로 분해해 수소를 추출하는 혁신 기술을 실증하는 것이 목표다.

이 사업은 2027년까지 진행되며, 향후 모빌리티용 수소 생산 실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통해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수소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8일 오후 2시에는 도청 4층 회의실에서 전주종합경기장 부지 내 관광호텔 건립 투자협약식이 열린다. 롯데호텔이 총 1,170억원을 투입해 4성급 관광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이 지난 4일 도청 기자실에서 7~11일 도정 주요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호텔을 건립하는 이번 사업은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전주대 스타센터에서 ‘하우와우 미래캠프 2기 발대식’이 개최된다. 김광영 도지사와 5개 대학 총장, 기업 대표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는 멘토-멘티 결연식과 함께 1기 성과 공유의 시간을 갖는다.

9일에는 군산시청에서 ‘차세대 CCU

기술 고도화 사업’ 업무협약이 체결된다.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는 포집된 탄소를 활용해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로,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를 상용화 하는데 박차를 가한 예정이다.

10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1호 사회협약인 ‘핵심 장학사업’ 체결식이 열린다. 도와 사회협약위원회,

농협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5,000만원을 적립해 전국 대회 예술·체육·수학·과학·어학 경시대회에서 1~3위를 수상한 초·중·고 학생 인재들에게 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11일에는 전북자치도와 시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정례 간담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이 자리에서는 탄소중립과 녹색성장 관련 기본계획 공유와 협력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도내 국회의원과 도, 시군이 참여하는 합동 예산정책협의회가 열린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한편, 진안 군상지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새마을 사업으로 선정돼 5년간 국비 3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여기에 도비를 포함 총 44억원을 투입해 낙석방지, 집수리, 생활 인프라 정비 등 종합적인 마을 개발이 추진된다.

지난 1월 화재로 피해를 본 격포항 수산시장도 복구를 완료하고 7월 9일 개장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김철태 대변인은 “이번에 추진되는 각종 사업들이 전북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尹 단죄에 필요한 실체적 진실 드러나”

민주 이성운 의원, 윤석열 내란 혐의 9차 공판 관련 “계엄 포고령에 병원 의사들까지 업무 복귀 대상으로 포함 이상하게 느껴” 증인 진술에 책임있는 자세 촉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2025고합129)에 대한 제9차 공판이 7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렸다.



지난 6월 23일 열린 8차 공판 이후 10일 만이다.

이번 재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을)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는 공정한 심판을 내릴 의지가 있는가”라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날 공판에는 권영환 전 합동참모본부 계엄과정과 고동희 전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권 전 과정은 “포고령에 병원의 사들까지 업무 복귀 대상으로 포함된 것을 이상하게 느꼈다”고 말했고, 고 전 처장은 “뒤통까지 못

한 일에 연루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다”고 증언했다.

이성운 의원은 이에 대해 “윤석열 단죄에 필요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재판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재판의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이날 변호인단은 “특검이 군·검 합동수사본부(특수본)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으나, 특수본은 ‘이첩’ 방식으로 처리했다”며 “이는 절차상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지금껏 들도 보도 못한 억지 주장”이라며 “불상식한 껀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내란특검은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에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 진행을 촉구했으나, 지귀연 재판부는 별다른 조치 없이 재판을 미루어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민은 이런 지연에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지귀연 재판부가 정신차리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검찰개혁, 늦어도 9월까지 완수”

‘당권 도전’ 민주당 박찬대 의원, 전주대에서 토크콘서트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과 간담회 갖고 현안 논의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박찬대 의원이 지난 5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늦어도 9월까지의 제도·입법적 완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전주대학교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우리나라 위기는 검찰로부터 시작됐고 그 끝은 검찰 개혁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70년, 80년간 이어진 정치 검찰과 싸우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무소불위 기소권을 가진 검사에 대한 죄를 묻기 위해 우리 국가가 윤석열 정권 때 검사 탄핵의 길을 뚫어 놓았던 것이다. 검찰개혁의 열개는 이미 완성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최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두고 비판한 것과 관련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장애가 될 만한 인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깊은 고민 끝에 그러한 인사를 했을 것이라 신뢰한다”고 했다.

아울러 “누구보다 검찰의 날카로운 칼날 앞에서 가장 고통을 받은 사람이 이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은 검찰 인사와 관련해 깊은 뜻이 있을 것이



지난 5일 전북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안을 논의한 뒤 한자리에 모여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회의장협의회 제공>

다. 대통령에 대해 한 가지만 꼽으면 신뢰다. 내란을 이겨내고 절체절명의 (위기를)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과 함께 뚫어내고 국민의 주권 정부를 만들었다”고 했다.

이날 전주대 토크콘서트에 앞서 박찬대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

원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전북 시군 의회의장들과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전북 시군의회 의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인구감소 대응 △대 광범(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통과,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역 현안과 정책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의 전북 방문에는 같은 당 안호영 의원과 박주민 의원, 이정현 의원 등이 함께 했다.

/김재훈 기자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북본부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돌봄 멈춤’과 7월 실천 투쟁’을 선언했다.

도내 돌봄 노동자들 “하루 멈춤 선언”

16일 실천 예고... 돌봄 국가책임제 실현 ‘한목소리’
돌봄노동자 기본법·아이돌봄 민간등록제 폐지 등 초국

“어르신의 손을 잡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고용불안과 저임금, 그리고 외면뿐이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전북본부 소속 돌봄노동자들이 지난 4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 돌봄 멈춤’과 7월 실천 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모인 30여명의 돌봄 노동자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너 이상한 참을 수 없다. 이제 우리가 돌봄을 멈춰야 세상이 우리를 돌아본다”고 외쳤다.

이들은 “촛불 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정부가 왜 돌봄노동자의 고통엔 침묵하느냐”고 반문했다.

돌봄 노동자들은 저출산 해소를 명분으로 300조원 넘는 국가예산이 투입됐지만 출생율은 세계 꼴찌라며, “아이돌봄 민간등록제는 아이 돌봄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대한민국에서 어르신 돌봄 역시 국가의 필수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되는 현실 속에서 돌봄노동자들은 이윤 추구의 그늘에 놓여 있다.

복지예산은 삭감되고, 정작 돌봄의 최일선에 있는 노동자들은 불안한 고용과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에 시달린다.

노인생활지원사들은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고 있고, 아이돌보미들 역시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그럼에도 정부는 책임을 지기커녕 오히려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이들은 성토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돌봄노동자 기본법 제정 △노인맞춤돌봄서비스지원법 제정 △아이돌봄 민간등록제 폐지 △전북특별자치도의 돌봄예산 확보 및 처우 개선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특히 전북자치도에는 노인생활지원사와 아이돌보미에게 필요한 업무경비와 최소한의 생계가 보장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우리의 절박함이 들리지 않는다면, 돌봄을 멈추고 거리에서 외칠 수밖에 없다”며 오는 7월 16일 ‘하루 돌봄 멈춤’ 실천을 예고했다.

아울러 7월 한 달을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알리는 행동의 달로 선포하며, 연대와 공감을 호소했다.

돌봄노동자들은 자신들이 하루 종일 타인의 삶을 지탱해오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무너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정부는 돌봄 노동자들의 손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만호 기자

제9대 후반기 고창군의회 개원 1주년... “의회 본연 역할 충실”

조민규 의장, 향후 계획 발표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지난 4일 의정실에서 제9대 후반기 고창군의회 개원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장 취임 후 지난 1년간의 의정성과와 향후 의정활동 계획을 발표했다.

조민규 의장은 인사말에서 “정확하게 1년 전인 2024년 7월 4일 제9대 후반기 고창군의회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남은 1년의 임기 동안에도 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또한, 조민규 의장은 지난 1년간의 주요 의정활동 성과를 설명했다. 먼저, 농업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고창군 농업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앞장섰으며, 윤석열 정부의 벽 재배면적 강제 감축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 시켰고, 호남 5개 시군의회 의장들과 함께 ‘서해안 철도 국가철도망 변경 공동 성명서’를 발표해 인근 시군의회 간



조민규 고창군의회 의장은 지난 4일 고창군의회 의정실에서 제9대 후반기 고창군의회 개원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조민규 의장은 기자들과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 먼저 ‘신장성~신정읍 송전선로 건설사업’ 질의에서 인근 시군의회가 공동 대응하는 것이 어떤지에 대한 질의에서 조민규 의장은 충분히 검토해볼 사안으로 시도하겠다고 답변했다. 한빛 1, 2호기 수명 연장에 관한 질문으로 군민의 목소리를 더욱 의회가 대변해 주길 바란

다는 의견에 대해서, 조민규 의장은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만큼 군민의 안전을 최선우에 두고 목소리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많은 기자분들이 취임 1주년 간담회 자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군민 모두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고창군의회를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대책 특위
전북환경운동연합과 간담회

정읍시의회(의장 박일)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지난 3일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SRF(고령연료) 소각시설의 환경적 위험성과 신정읍-신계동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문제점 및 주민 피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읍 관내에 추진 중인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와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에 미치는 영향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SRF 폐기물 소각은 중금속, 미세먼지, 다이옥신 등의 유해물질 배출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과 신정읍-신계동 송전선로 사업이 전자기파 노출, 재산권 침해, 경관 훼손 등 다양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위원회의 중점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읍=김대환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